

2023년 8월 6일 “여호수아(15) 유업의 피상성으로부터 탈피”(수 18:1-6)

여호수아서는 백성들에게 유업의 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유업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7지파가 어떻게 유업을 분배 받는지 보겠습니다.

[1] 지체하는 지파들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18:2).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냐(3절)고 추궁합니다.

이들은 분배 받은 후에 그 땅에 남아 있는 잔여세력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큰 전쟁 후 게을러져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피상적 이해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상적 이해의 단계는 누구나 거쳐갑니다.

[2] 무엇을 보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과 구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알고 하는 사람과 그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교회 봉사하고, 직장 일을 할 때, 그저 할 수도 있고, 가족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책임 때문에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창조적 일이므로 기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어떤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꿰뚫어 보고 있는가, 즉, 어떤 목적과 어떤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7지파는 유업의 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취하기에 머뭇거린 이유는 피상적 이해의 수준에 매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몸으로!

피상적 단계에서 벗어나는 영적 발돋움의 길은 말씀에 몸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롬 12:1 “...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고전 6:19-20 ‘여러분의 몸은 ... 성령의 성전.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들이 직접 몸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일곱 뿔으로 나뉜 땅으로 가서 땅을 밟아보고 지도를 그려서 실로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4절). 다른 5지파에겐 요구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가서 보고 자기 땅의 모양을 그려서 가져오면 주님 앞에서 소유에 대한 최종 선언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가서 볼 때 이곳이 우리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구체적 삶과 미래를 위한 구상이 떠오르며, 이 땅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동기부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활력이 살아나고,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더욱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많이 당하면, 유업의 선물의 가치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심어 두신 귀한 가치들이 있고 약속의 궁극적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공동체에 어떤 축복의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꿰뚫어 보는 영적 눈이 활짝 뜨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상성에서 벗어나 품으로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7 지파가 유업을 취하기에 머뭇거릴 때, 여호수아가 취할 땅으로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권면은 무엇을 가르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까?
2.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약속에 대해 진취적인 태도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언제 가슴이 가장 뛰곤 합니까?